

젊어진 KIA, 그래서 더 중요해진 양현종·최형우·나지완

외국인 사령탑 체제 기대주 즐바...초반 변수 ↓ 시너지 효과 ↑

에이스, 3·4번 타순, 내야 중심 등...베테랑 활약에 팀 성적 좌우

새롭게 출발하는 KIA 타이거즈, 젊은 선수들의 성장 만큼이나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올 시즌 외국인 사령탑 및 월리엄스 감독 체제로 시작하는 KIA는 박찬호, 문경찬, 전상현 등 검증된 젊은 선수는 물론 황대인, 최원준 등 알을 깨려하는 기대주들도 즐비하다.

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즌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선은 이를 상쇄해줄 고참 선수들로 향한다. KIA의 경우 이름값 높은 선수들이 적지 않기에 이들의 활약여부에 따라 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팀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양현종(32)의 어깨가 무겁다. 양현종은 이번 시즌도 변함없이 에이스 역할을 맡는다. 지난 5년간 18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6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승리,

6년 연속 150개 이상 탈삼진을 잡아낸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투수인 양현종은 지난해도 초반만 잠시 주춤했을 뿐 5월 이후 제 모습을 찾아 결국 평균자책점 1위(2.29)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 양현종은 개인적으로 메이저리그, 일본 등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어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FA 4년계약 마지막에인 최형우(37)는 이번 시즌 3번 타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비록 타율 0.300을 기록하며 2017년, 2018



년보다 다소 성적이 하락했지만 정교함과 한 방 능력은 여전히하다는 평가. 4번이 아닌 3번 타순에서 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지명타자로 출전해 수비 부담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4번 타순을 맡을 나지완(35)은 명예회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몇 년 부진이 이어지며 입지가 축소된 나지완은 올 시즌 좌익수, 4번 타자가 유력하다. 최근 열린 연습경기에서 잇따라 장타를 날려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다.

지난 1월 4년 40억원에 KIA에 잔류한 김선빈(33)은 유격수가 아닌 2루수로 새 출발한다. 2017시즌

타격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불꽃 활약을 펼친 김선빈은 지난 2년간 다소 임팩트가 줄었으나 공수에서 여전히 팀 내 대체하기 힘든 자원으로 꼽힌다. 안치홍(롯데)이 이적하면서 할거위될 수 있는 내야의 중심을 잡는다. 유격수 박찬호와 새 키스톤콤비도 꾸린다.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 떨 수 있다

FIFA 실무그룹 발표 "지금의 참가자격 그대로 유지"



2021년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종목에 '24세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그룹의 첫 번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종목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는데, 1997년생들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FIFA 측은 "올림픽 축구와 관련, 지금의 참가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선수들이 본선에 나설 수 있으며 와일드카드를 3명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다. 올림픽 남자축구는 출전선수 연령이 23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예선을 통과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1997년생 선수들은 출

전자격을 잃게 되는 까닭이다. 관련해 도쿄올림픽에 한해서는 24세로 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FIFA의 생각도 같았다.

이로써 각국 1997년생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만약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김학범 감독도 머리가 아플 상황이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던 지난 1월 AFC U-23 챔피언십 참가 멤버들 중 다수가 1997년생이었다.

MVP를 받은 원두재(울산)를 비롯해 이동경(울산), 김진규, 이동준(이상 부산), 송범근(전북), 김대원, 정승원, 정태욱(이상 대구), 이유현(전남), 강윤성(제주), 김동현(성남) 등이 모두 1997년생이다. 대회에는 나서지 않았으나 본선 합류는 유력했던 백승호(다름슈타트)도 있다. 김 감독 입장에서 도 머리가 복잡한 일이었다고 고민 하나를 털었다.

이와 함께 FIF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까지 남녀 A매치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여자축구 도쿄올림픽 예선도 포함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플레이오프 일정도 또 미뤄진다. FIFA U-20 여자 월드컵과 U-17 여자 월드컵도 연기된다.

"나 없어서 고우석 나왔다" LG 정찬현, 반가운 복귀전 호투



LG 트윈스 정찬현이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자재 청백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볼의 부상으로 자신의 자리를 한참 어린 후배에게 빼앗긴 것이 유쾌할 리 없었지만 정찬현(30)은 웃었다. 그런 제자를 보며 차명석 단장은 "그게 고수"라며 흠족해 했다. 정찬현이 반가운 호투를 펼쳤다.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의 자재 평가전에 선발 등판해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아직 142km로 부상 전 기록에 미치지 못했지만 투

구수 15개로 아웃카운트 6개를 잡아내는 노련함을 선보였다. 정찬현에게는 지난해가 아쉬운 시즌으로 남아 있다. 팀의 마무리 투수로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해 초반 성적도 좋았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악화돼 13경기만에 시즌아웃된 것. 1승1패 6세이브 평균자책점 1.64로 쾌조의 출발을 하던 중이라 아쉬움이 더욱 컸다. 이날 경기는 정찬현에게 지난해

5월 이후 약 11개월만의 실전이었다. 마침 차명석 단장이 해설위원 경력을 살려 구단 자체 중계의 해설로 나섰다. 차명석 단장은 LG 투수코치 시절 정찬현을 지도한 인연이 있다.

마이크를 잡은 차명석 단장은 정찬현의 투구 중 두와 라커룸에서 만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말하던 중 정찬현이 "그래도 내 덕분에 고우석이 나왔다"고 말했다는 것. 차명석 단장은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중계하던 임용수 캐스터에게 "그게 고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찬현이 전열을 이탈한 뒤 고우석이 마무리 자리를 이어 받아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고우석은 65경기에서 8승2패 35세이브 평균자책점 1.52를 기록, 구원 2위에 오르며 팀의 가을야구 진출을 이끌었다. 시즌 후에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도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결과적으로 LG는 정찬현의 부상으로 고우석이라는 걸출한 마무리를 얻었다. 정찬현까지 올 시즌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금상첨화다.

"류현진, 우리집으로 가"

'LA다저스 시절 찰떡 궁합' 마틴 집으로 이사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토론토 블루제이스)이 LA 다저스 시절 찰떡 궁합을 자랑했던 러셀 마틴(37)의 도움으로 위기에 빠져버리게 됐다.

캐나다 매체 '패션(Passion) MLB'는 5일(한국시간) 마틴이 플로리다에 있는 류현진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것을 제안했고 류현진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으로 새로운 소속팀 토론토에 마련해 놓은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한국 귀국 역시 임신 중인 아내 배지현씨의 장거리 비행 부담으로 쉽지 않았다.

결국 류현진은 토론토의 스포츠 캠프지인 플로리다주 다니든에 머물고 있었다. 설상가상 플

로리다주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마틴이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패션 MLB'는 "지난 몇 주 동안 류현진과 그의 임신한 아내에게는 플로리다에 머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마틴은 류현진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류현진에게 연락해 자신의 플로리다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고, 류현진 부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러 매체는 "플로리다주에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류현진 부부는 어려움이 컸다"며 "하지만 이제는 마틴의 플로리다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류현진과 마틴은 지난해 다저스에서 '환상의 짝꿍'이었다. 류현진은 마틴과 호흡을 맞춘 20경

기에서 평균자책점 1.52를 기록했다. 지난해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32)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마틴의 공도 컸던 셈이다.

마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으로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그러던 중 류현진의 힘든 사정을 전해 듣고 먼저 연락을 취해 류현진에게 도움을 줬다. 마틴의 플로리다 집은 현재 류현진이 머물고 있는 다니든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 외에도 마틴은 류현진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류현진의 토론토 이적 직후 토론토의 포수들이 마틴에게 연락해 새로운 에이스가 된 류현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구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토론토에서 뛰었던 마틴은 리즈 맥아이어, 데이 켈슨 등 토론토 포수들과 인연이 있다.

한편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류현진과 마틴은 나란히 FA 자격을 획득했다.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총액 800만달러라는 대박 계약을 체결한 반면, 마틴은 아직 소속팀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스포츠도 코로나19로 '아시아인 인종차별'

다르빗슈·다나카 호소 "신변 위협 느끼는 사진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스포츠계에도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대륙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 행위가 또 다른 국제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본인 메이저리거 다르빗슈 유(34·시카고 컵스), 다나카 마사히로(32·뉴욕 양키스)는 나란히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다나카는 지난달 말 일본으로 일시귀국한 뒤 일본 언론을 통해 "스프링캠프가 중단되고 캠프

지 플로리다에서 생활하던 중 코로나19 이외에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다르빗슈도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아시아인을 상대로 차별적 행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하면서 원래도 좀 있었던 아시아인 대상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러 다르빗슈는 "나는 신장 19cm에 체중도 100kg이 넘고 아시

아인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릴 적도 이상한 일을 겪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애들은 누가 봐도 아시아인으로 보인다. 아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생각하면 무섭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르빗슈는 미국이 '충기 사회'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해도 1년 이상 이 상황이 계속돼 일자리가 없어지고 식재료도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총으로 위협해 필요한 걸 얻으려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두려움을 나타냈다.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아직까지 인종차별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8·토트넘)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최근 유럽의 축구 전문 유튜브가 손흥민이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는 사진에, 손흥민을 제외한 동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올린 것.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에 한국인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

